

## Session 12 왜 우리는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를 이해해야만 하는가? (Why We Must Understand The 7 Churches in Revelation 2-3)

### I. 복습 : 계시록의 메시지

- A.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불리는데, 이는 계시록이 그분의 마음과 권능과 리더십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 (계 1:1)*

- B. 계시록의 주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영혼들에 대한 추수(계 7:9)와 모든 정부들을 대신하여 온 땅에 대한 리더십을 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계 11:15; 19:15-16).

*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 (계 1:7)*

- C.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준비되어진 신부들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신부들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풀어놓으며, 어둠을 맞서기 위해 환난을 풀어놓는 기도 가운데 기름부음을 가진 신부들이다.

*7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계 22:17)*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 8:4-5)*

### II. 계시록 개요

계시록 1장 :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대한 18가지 설명을 통해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신다.

계시록 2-3장 :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7개의 편지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신다.

계시록 4-5장 :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늘의 권한과 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계시록 6-19장 :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어떻게 준비시키실 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다.

계시록 20-22장 :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명확히 보여주신다.

### III.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 : 이기며(overcome) 권능 가운데 사역하기 위한 준비

- A.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사도와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 일하실 성령님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종말론적 사도행전이다. 이 7개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동역하며, 재림과 관련된 그분의 전 세계적인 일하심을 어떻게 함께 준비해나갈지를 가르쳐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 B. 이 서신들은 예수님께서 세워나가고 계신 교회의 종류와, 그분이 이 교회들에게 던지시는 문제에 대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정의하시는 사랑과 적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다. 여기서 교회들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함이 정의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세가 10가지의 재난을 애굽에 풀어놓으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놓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성숙함이다.
- C. 이 서신들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걸어가도록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진리와 핵심들에 대해 정의해준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에 대해 순종하고, 그분의 경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들(특히 그분의 22가지 영원한 상급들)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큰 도전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 IV. 7개의 서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5가지 방법

- A. **개인적으로** : 이 서신들은 개인들이 반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 B. **함께** : 지역교회들이 이 진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은 서신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예이다.
- C. **역사적으로** : 서신들은 먼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들을 향해, 각각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언급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서신서에 나오는 1세기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 있던 상황을 그 이후 진행된 교회 역사의 영적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나 자신은 이 부분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D. **우주적으로** : 로마서가 로마의 교회들에게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서신들은 1세기의 모든 교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 E. **종말론적으로** :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계시록 6-19장에 있을 일들에 대해 준비될 수 있도록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간대가 될 것이다.

#### V. 일곱 서신에 대한 연구 : 서신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들

- A. **역사적인 상황** : 각각의 교회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었던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곱 교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예언적인 통찰력이 부여될 것을 알고 계셨다

- B. **충성됨에 대한 칭찬** :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 교정하기 이전에 칭찬(격려)을 부여하셨다(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두 교회들은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했다(사데, 라오디게아).
- C. **타협에 대한 책망** :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다. 예수님의 책망은 거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개의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 : 에베소(2:4), 버가모(2:14) 그리고 두아디라(2:20) 교회이다. 두 교회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다(서머나, 빌라델비아). 예수님께서 가장 꾸짖으신 타협은 수동성과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였다(음행, 마법; 골 3:5; 엡 5:5; 고전 10:20-22). 이 일들은 회개는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한 것이었다.
- D. **반응하며 나올 것을 권고하심** :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종종 경고들과 함께 그분께서 원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부분은 수동성(늘어난 축복으로 인해 느슨해진 마음)과 두려움(핍박/거절)에 대한 것이었다.
- E.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 : 예수님께 충성됨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다. 이 약속들의 대부분은 천년왕국에 성취될 것이다. 상급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이겨나가는 것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 2-3장에서 우리에게 22가지의 영원한 상급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2:7,10,11,17,26,28; 3:5,9,12,18,20,21).
- F. **예수님에 대한 계시** : 각 메시지들은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에 필요한 특정한 부분의 예수님의 위엄에 대해 언급되며 시작한다. 예수님의 위엄에 대한 16가지 부분들은 계시록 2-3장을 통해 조명되어 있다. 이 부분에 더 알기를 원한다면 [www.IHOP.org](http://www.IHOP.org)를 방문해보기를 추천한다.<sup>1)</sup>

## VI. 예수님에 대한 16가지 묘사들 : 특정한 유혹들에 대한 적용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 (계 2:1-3:14)*

## VII.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 5가지 암시들

- A.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반복하셨던 권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이는 성경에 16번이나 기록되었다(복음서에 8번, 계시록에 8번, 마 11:15; 13:9,43; 막 4:9,23; 7:16; 눅 8:8; 14:35; 계 2:7,11,17,29; 3:6,13,22; 13:9)

1) 역자주 : 계시록 스터디 가이드 Session 02에 설명되어 있음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계 2:7)

- B.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곧이어 나올 내용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극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 C. 두 번째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부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장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내용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뜻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놓인 진리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 추구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 D.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헌신된 신자라 할지라도 앞에 놓인 진리를 자동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이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심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 E.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권고들을 주로 영원한 상급들에 관련되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 22가지의 영원한 상급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22가지의 상급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 상급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 F. 다섯 번째로, 언급된 진리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깊이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긴 시간 동안 이 진리들을 계속 지속해나가기 위한 끈질긴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쉽게 놓아버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 G. 예수님께서서는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해서(들을 귀 있는 “자”), 그룹들(“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반응과 연합적인 반응, 둘 다를 원하신다.
- H. 예수님께서서는 신약에서 이에 대해 외치신 유일한 분이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한 모세(신 6:4-5)와 아버지(시 45:10)의 외침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 VIII. 교회를 향한 사자 : 사도적인 리더십

- A. “교회를 향한 천사”는 각각의 그룹들에 대한 사도적인 리더를 말한다.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angelos”<sup>2)</sup>이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천사 또는 사람인 메신저를 뜻한다(눅 7:24,27; 9:52).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이 단어는 “메신저(messenger, 사자)”로 번역된다(마 11:10; 막 1:2).

---

2) 역자주 : 전달자

- B. 메신저(사자)는 메시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타협, 두려움이나 방만함으로 인해 그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도적인 리더들은 예수님께서 이 서신들 가운데 계시하신 것들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진리들을 실제로 행동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나갈 책임이 있다. 리더들은 어떤 이들이 계시록 2-3장의 메시지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지라도 물려서서는 안 된다.
- C.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따른다.

### VIII.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들 : 영원한 상급들

- A. 예수님께서서는 (22가지 상급들을 말씀하시며) 상급에 대한 그분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의 계획의 영광과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동기를 발견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셨다. 그분은 자신의 재림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 계시하셨다(계 11:15-18).
- B. 이는 우리가 영원 가운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섬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고통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이는 곧 힘을 잃고 만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구원과 의롭게 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며, 이는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기반을 둔 것이다(엡 2:8-9).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행함, 또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귀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 등으로 인해 주어진다.
- D. 우리 각자가 받게 되는 영광의 정도는 서로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22가지 상급들의 대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작은 정도라도 받게 되는 부분들이다. 계시록 2-3장에서의 핵심은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의 크기에 대한 것이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이 상급들의 **충만한 분량**을 받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2-3장을 통해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 상급들은 영원한 삶에서 받게 되는 축복들이 서로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전 15:41).
- E. 이 상급의 부분은 우리에게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상급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 F.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상급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상급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이 다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친다. 이 관점은 이 상급들을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해석한 것이다. 이 상급들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로부터 회개를 하거나 마지막까지 충성되어야만 한다. 계시록 2-3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회심(born-again)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는 이 상급들을 회심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유혹이나 핍박에 맞서서 더 큰 충성됨으로 설 것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다.

### X. 예수님께서서는 22개의 영원한 상급들에 대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됨(2:7);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됨(2:10);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2:11);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됨(2:17); 흰 돌을 받게 됨(2:17);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게 됨(2:17);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됨(2:26); 새벽 별을 받게 됨(2:28); 흰 옷을 받게 됨(3:5);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음(3:5);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름을 시인 받음(3:5); 박해자들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됨(3:9);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박해자들이 알게 됨(3:9);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함(3:12);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이 위에 기록됨(3:12);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됨(3:18); 흰 옷을 받게 됨(3:18);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름부음 받은 눈을 가지게 됨(3:18);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됨(3:20);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됨(3:21).

## XI. 이길 것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기

- A. 여기서의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강조하셨던 특정한 부분에 대해 충성됨으로 성숙해진 자들을 말한다.
- B.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됨을 말한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그들이 남은 삶 동안 간음과 우상 섬기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데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깨어있으며 기도의 삶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들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남은 삶 동안 성숙한 순종으로 인내하는 것을 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 이기는 것은 미지근함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
- C. 이기는 것은 어떤 이의 성품이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놀랍도록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신다.
- D.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충성됨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돌파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충성되다고 여겨진 두 예는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이다. 바울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이며(행 13:22),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롬 4:20)에 대해 기록했다.

## XII.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 다른 상황

- A. 첫째로, **세상적인 불신을 이기는 것** :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 기술된 것과 같이(요일 4:1-5; 5:4-5) 이단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김을 성취한다.
- B. 둘째로, **충성되지 않음을 이기는 것** : 신자들의 삶에서 특별히 계시록 2-3장에 기술된 부분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이기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지속적인 순종을 드림을 의미한다.
- C. 정리 :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김은 회심을 통해서 **불신(unbelief)**을 이기는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김은 끝 날까지 순종 가운데 인내함으로 **충성되지 않음(unfaithfulness)**을 이기는 것이다.

### XIII. 어떤 이들이 이기는 자들인가? 3가지 관점들

- A.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관점** :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각자의 충성됨과 신실함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계시록 2-3장의 상급들이 주어짐을 가르치는 것으로, 올바른 가르침이다. 상급들은 값없는 선물인 영원한 삶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는 충성됨에 대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충성됨의 부분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
- B. **모든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관점** : 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요일 5:4-5). 여기서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됨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미성숙한 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계시록 2-3장의 상급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부여지며, 영생의 선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십자가 상의 강도가 바울이나 세례 요한과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 C. **구원을 잃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관점** : 이는 계시록 2-3장의 신자들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충성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관점은 이기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구원의 상실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관점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영적인 미성숙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직 성숙한 신자들만이 구원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계 2:2-7)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생을 마감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관점이다.